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순항’ 작년보다 5개월 앞서 1000억 돌파

농식품부, 1조 목표... 맞춤 지원 강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로 농가 수익 ↑  
신규품목 추가·설 특화상품 할인 효과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박차

정부가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 시장의 거래액 목표를 1조 원으로 잡았다. 1월23일 기준 이미 목표치의 10분의 1인 1000억 원을 넘어서었다. 지난해 1000억 원 돌파 시점(2024년 6월17일)과 비교하면 국내 온라인도매시장은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위해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 품목 지속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판매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파른 성장세와 관련해, 가입요건 완화·거래부류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이용자 수의 대폭 증가를 꾀했다. 작년 1월 기준 판매자 149개소·구매자 333개소에서 올해 1월 기준 판매자 1136개소·구매자 2834개소로 늘어났다.

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우영,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개시됐다. 설 명절 기간 특화상품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년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 원)에 비해 100% 넘게 증가(38억 원)했다.

농식품부는 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번 설에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을 실시해 전년동기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620톤(t) 판매를 기록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30일 출범했다. 이 도매시장은 거래 시 바로 정산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매업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도입 초기인 만큼 많은 판매·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 같은 애로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를 늘려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의 괴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 올해 벼 재배면적 줄여 쌀값 하락 막는다

농식품부, 8만ha 감축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별 자율 조정제를 추진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각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한다. 이어 지역농협·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하는 수순이다.

또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 및 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올해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관측 등 유통 및 소비 기

반도 지원한다. 정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해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식량·사회간접자본(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도 우대한다. 지자체와 농업인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달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정제 추진 방향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교육,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제도 등을 안내해 현장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모호한 법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예방

권익위, 부패 유발요인 272건 개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와 관련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안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거나 불합리한 제재 및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 뒤, 148개 법령에서 총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과 제도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로, 총 107건(39.3%)이 해당됐다. 그다음으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으며, 총

53개 법령에서 89건(35.8%)의 개선이 권고됐다. 이어 환경·보건 분야(34개 법령, 68건, 23.0%), 교육·문화 분야(20개 법령, 40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 질량의 특성과 유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해 의료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제재의 합리성도 강화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온라인쇼핑 최대치 경신에도 ‘증가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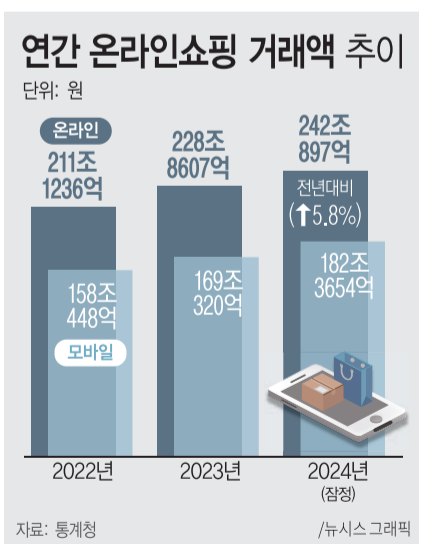
통계청, ‘2024년 온라인쇼핑 동향’  
증가율 한 자릿수... 티메프 사태 영향  
배달 음식서비스 등 거래 크게 증가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으나,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작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민간소비의 부진을 비롯해 티몬·위메프 사태, 12·3사태 등이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5.8% 늘어난 242조8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배달 등 음식서비스(10.9%)와 음식료품(14.8%)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교통서비스(9.3%)도 크게 성장했다.

반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전년대비 증가 폭은 2022년 10.3%, 2023년 8.3%, 2024년 5.8% 등 둔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의 ‘5%대’ 수치는 역대 최저다. 지난해 7월 이른바 티메



프 사태 이후 월별 증가율도 8월 2.0%, 9월 2.2%, 10월 0.7%, 11월 1.0%, 12월 3.2%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2·3사태 여파로 연말 특수도 사라졌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거래액 증가율이 7.7%에 달한 반면 2024년 12월 거래액은 3.2% 느는 데 그쳤다.

‘해외직구’는 증가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일본 업체에서 구매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온라

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전년대비 19.1% 늘어난 7조9583억 원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액이다.

해외직구는 미국(-8.9%)에서 감소했으나 중국(48.0%), 일본(16.4%)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쇼핑 앱이 강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0.5%)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12.9%), 생활·자동차용품(72.1%), 가전·전자(26.4%) 등에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을 직접 파는 판매액도 1조7225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지역별로, 중국(-7.4%) 등에서 감소했지만 미국(41.7%), 기타 아시아(150.9%)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음반·비디오·악기(-39.1%) 등에서 줄었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436.7%),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17.5%), 음식료품(65.0%) 등에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직업훈련기관 맞춤형 컨설팅 받으세요”

고용부, 훈련과정 혁신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를 통해 훈련 운영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과 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새로운 교수법

적용을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해 직업훈련의 혁신적 전환을 돕는다. 해당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와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돕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00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2~3회의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